

# 황병우 DGB 회장 내정자, 은행장 겸직 유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행장 공백 우려에 겸직 가능성 ↑  
 선임 절차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주총 이후 겸직 여부 논의 될 듯

황병우대구은행장이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황병우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도 취임 초기에 대구은행장을 겸임한 바 있다. DGB금융에 강력한 리더십 재탄생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병우 회장 선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3월 말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지주사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황병우의 취임 이후 행장직 겸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DGB금융은 황병우의 회장 취임 이후 행장 겸임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DGB금융 관계자는 “회장 후보 단독 추천 안건을 우선 의결해야 하는 만큼, 차기 대구은행장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황병우의 임기가 오는 12월까지로 1년 미만을 남겨두고, 대구은행장 승계 프로세스가 재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만큼 겸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DGB금융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도 취임 초 대구은행장을 겸임했고, 전임자인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도 임기 동안 대구은행장

을 겸임했다.

특히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 겸임 당시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 인수, 그룹 핵심 인재 육성 프로세스 도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성사시킨 바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행장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는 것 역시 황병우의 겸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요인이다. 은행장 선임에는 내·외부 후보군 선정, 이사회 평가 등의 과정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인사인 김태오 회장의 취임 당시에는 DGB금융 내부에서 김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황병우는 DGB금융 내부 인사인 만큼 겸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황병우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직접 이끌었던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조직 안정화 및 영업망 확대 전략에 주안을 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황병우는 대구은행의 시중은

행 전환 이후 전략으로 기존 거점지역에 본점을 둔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거점지역 내 고객에게 영업점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전국단위 거점 영업점을 설치해 비대면 개인 금융 서비스, 맞춤형 기업 금융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겠다는 것.

황병우는 “대구은행은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우의 회장 취임 이후 행장 겸임 여부는 3월 주총 이후 분명해질 전망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은행장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선임 절차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회장 후보 확정 안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은행장 겸임 여부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은 3월 주총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NH농협카드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상생 페스티벌 진행

NH농협카드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다.

#### ◆ 행사상품 최대 50% 할인

NH농협카드의 ‘NH농협카드 상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못난이 채소 ▲친환경 농축산물 ▲지역특산물 등을 할인한다. 이달을 시작으로 오는 6·9·12월에도 상생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 10곳이 참여했다. 각 가맹점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 신한카드

### 학생증체크카드 고객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카드가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

#### ◆ 카드 이용 관련 교육 콘텐츠 발송

신한카드는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대학생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발급 신청 완료 문자와 함께 카드이용 및 신용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발송한다. ▲체크·신용카드의 차이점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맞춤형 금융교육은 지난해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시범 사례다.



### KB국민카드

### 창립 기념일 맞아 걷기 기부 캠페인

KB국민카드 임직원이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캠페인을 단행한다.

#### ◆ 아동 소원 성취 후원금 조성

KB국민카드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임직원이 참여하는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WE:SH) 드림’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성취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임직원들이 3월 한 달간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 이상을 달성하면 오는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해 555명의 아동에게 선물 비용을 후원한다.

전 임직원이 일상에서 참여하는 건강한 기부 문화 정착과 함께 ‘걷기 기부’를 통한 저탄소 생활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신 기자

# 이문구 “수익 극대화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 동양생명 신임대표 취임

“영업 핵심 좋은상품 개발 위해 시스템·인력 최우선 구축할 것”

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는 “규모의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인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4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영업의 핵심인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동양생명

약 1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소개 및 취임사 그리고 직

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대표는 “영업 경쟁력 극대화에 힘쓰고 자산운용부문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면서도 시장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 속에서 최소화된 관리 오류와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 부문에는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대표는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조직내 소통과 상호존중을 통한 긍정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

통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사와 조직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라면 그 어떤 작은 목소리라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강조했다.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취임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여 임직원들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업무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동양생명은 “취임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대표는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2024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등 공식 일정 첫날부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우리은행 청년층 최초 대출 고객 금융교육 알림톡 발송

우리은행은 금융교육 알림 톡 발송을 4일 시작했다.

금융교육 알림 톡 발송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최초로 대출을 받는 2030 청년층 고객에게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안내 메시지와 함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콘텐츠는 대출을 처음 접하는 청년층 고객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구성된다. ▲이자율 ▲대출한도 ▲대출 상환 방법 등 올바른 대출관리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보유 뒤 개인거래 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무 5년, 전매제한 10년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작년말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

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무기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무기 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무기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제공된다. 제공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무기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